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2장 다같이

1.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2. 나 주를 따를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3.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하소서
4.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사무엘하 24장 18-25절 인도자

설 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새로운 해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18-25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중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 가운데(삼하 21-24장) 첫 번째(21장)는 기근과 기근의 회복에 관련된 사람 리스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24장)는 전염병과 회복에 관련된 사람 아라우나가 나온다. 두 사람은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한 사람들이다. ▶본문에는 난해한 내용이 많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죄를 범하게 하셨다는 것, 다른 본문에서는 사탄이 그런 격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나온다는 것,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내용 등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2-9절), 양심의 소리와 선지자 갓의 책망을 통한 회개(10-17절),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18-25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명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사탄이 시험했다고 해도, 다윗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윗의 야망과 교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구조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니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 것이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군사나 징세나 부역이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9개월 동안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스라엘 전군의 규모는 130만 명이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아신다.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다. 범죄한 뒤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지도자의 죄는 크다. 지도자의 죄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왕이 죄를 범하자 백성들이 병들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했다. 하지만 다윗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재앙의 전과 후에 모두 기도를 드려 회개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 징벌을 선택하게 했다. 7년 대기근,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기는 환난,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했다. 기왕 맞을 바에는 하나님의 손에 맞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이지만 자비의 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쓰러졌다. 그러자 제정신이 든 다윗은 자기의 집안을 치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왕으로서 다윗의 책임 의식의 발로였다. 사실 이런 회개의 말은 모세처럼 처음부터 나왔어야 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오르난이라 불리기도 하는 아라우나는 이스라엘에 복속된 여부스 사람으로, 이름의 뜻은 돌이깨질, 들깨타작, 콩타작 등이다.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에 오자 아라우나는 제단에 소용되는 모든 것을 공짜로 헌물하려 했지만, 다윗은 제값을 치르고 구입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제사는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어야 한다. ▶타작마당이 제단으로 바뀐다. 심판의 자리가 긍휼과 자비의 장소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끝난다. 장차 솔로몬에 의해 이곳에 세워질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을 하고 용서를 하시겠다는 뜻이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심판과 긍휼이 한 곳에 집중됨을 보임으로써 십자가를 예표한다. 심판의 자리가 항구적인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 ▶이스라엘 멸망 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재건해 가는 포로 후기에는 성전 위치를 잡고 제단을 쌓는 이 이야기가 무척 중요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긍휼로 멈춰선 곳이고 하나님의 제단 자리로 지목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도 바로 이곳이다.